

농업 3대기금 상환기간 연장하고 농업인 월급 상한액 250만원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남 농업지원제도

다목적 소형농기계 1만666대 보급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한도 늘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확대

전남도가 내년부터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6개의 달라진 제도와 획기적인 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3대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상환기간이 일제히 연장된다.

3대 기금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1일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친환경육성기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기로 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농업인 월급제 지급 상한액도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1만666대도 보급한다. 농기계 구입 지원 조건을 7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 농기제로 낮췄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였다.

또 신규사업으로 1t 트럭 보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를 70%까지 보조하고,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중형(66㎡ 규모) 저온저장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60개 청년농가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로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8개 시군에서 시행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급횟수도 월 4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 10개소에 코로나 대응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내 젓소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위해 젓소 혈통 등록비와 심사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시책도 내놨다.

내년 달라진 농업분야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농업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가 경영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마련했다"며 "농업인들은 내년 달라진 시책에 관심 갖고 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낙농육우협 전남도지회 우유 3만 6000개 기부

최근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와 우유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전남도내 이웃들에게 1800만원 상당 우유 3만 6000개를 기부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우유 나눔 행사에는 정육민 전남도의회원과 이정열전남낙농육우협회장, 정해정 전남낙농협 조합장,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기부 받은 우유를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

달할 계획이다.

이정열 전남낙농육우협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우유를 마시고 면역력이 강화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는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00만원 상당 우유 3만개를 기부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안포 농촌체험휴양마을 드라이브스루 김장 체험행사



여수 안포마을 부녀회(정광업 부녀회장), 성산초등학교(교장 박형례)가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인해 김장 체험행사를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하면서 참가 가족에게 김장 재료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안포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들과 성산초교 학부모 및 학생 23가정 77명이 참여했다.

김장 재료와 김장담그기 교육자료 등을 미리 받아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김장을 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본교에 재학 중인 부자가정, 조손가정 및 인근 지역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양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내년부터 年 300명 정보통신 전문인력 배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도, 광주시와 함께 '호남권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해 미래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21년 3월 연내 강의실 등 교육시설을 마련한 뒤 연간 300명씩 4년간 모두 1000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1개 운영사무실, 교육생간 네트워크 지원실, 온·오프라인 회의 및 강의를 위한 프로젝트실, 휴게공간 등 약 1084㎡에 이르는 복합교육공간을 구축한다. 이 복합교육공간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ICT 전문 인력을 새롭게 양성해 관련 지역 기업의 인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진흥원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DNA-US 기반 청년일자리프로젝트' 및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등의 사업과 연계해 연간 320명 내외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료생 중 만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대상으로 취업 시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월급이 약 2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는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준근 진흥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디지털 분야 핵심사업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분야의 핵심인재가 지역 내에 공급돼 지역 ICT산업의 미래 역량을 높이고, 지역미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나노바이오요, 실리카캡슐 제조 기술 이전

(주)명품 내년말부터 제품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방향성 오일을 함유한 실리카 캡슐 제조방법' 특허를 (주)명품에 기술이전하고 제품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ECO융합첨염연구원, (주)명품 등 3개 기관은 협약식을 갖고, 방향성 오일을 함유한 실리카 캡슐을 제조하는데 정보와 기술, 인적교류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ECO융합첨염연구원은 제조기술을 (주)명품에 제공하고, (주)명품은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 생산에 이를 활용해 내년말부터 본격적인 제품화에 돌입한다.

특히 이전된 특허기술은 저렴한 실리카 원료물질을 사용해 방향성 향기성분 오일을 함유하고 구조적으로 우수한 캡슐 제조법이다. 이 기술로 만든 캡슐은 포함된 활성성분들을 서서히 방출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어 화장품과 의약품, 향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ECO융합첨염연구원, (주)명품은 내년 '곤충소재를 활용한 바이오활성소재 개발' 사업도 추진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남영 ECO융합첨염연구원장은 "그동안 각 기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응용연구를 진행한다면 현재 계획중인 사업에 큰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연구기술보급 발표회' 최우수상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전국 수산기술 보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연구기술보급 사업 발표회'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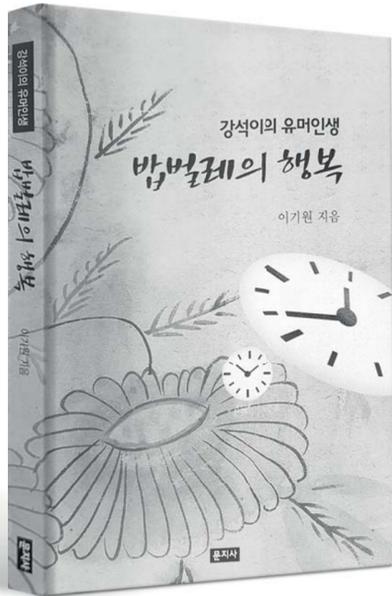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수산현장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가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매년 개최중이다.

올해 발표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 심사로 진행됐으며,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경기도 수산기술센터의 9개 과제가 참가했다. 심사결과 전라남도가 제출한 '어류 해상 가두리 대체품종

(참조기) 산업화연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새조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양식기술 개발'이 장려상을 획득했다. 참조기는 전남의 대표 수산물로 맛과 품위가 뛰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어종이지만 최근 연근해 자원고갈로 인해 어획량 저하와 변동이 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참조기 해상 가두리 양식 개발을 위해 양식 적합지 선정, 월동 가능성 여부, 적정 수밀도, 타품종과 경제성 비교분석 등 다양한 시험연구를 통해 양식의 가능성을 규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